

췌장암의 증상

- ◇...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후복강에 위치하고 있어 진찰하기...
- ◇... 어려운 기관이다. 또 췌장은 담관이나 간문맥 주위에 위치...
- ◇...하고 심이지장, 위장과 대장 등 여러 장기에 의해 둘러싸여...
- ◇...있기 때문에 췌장암의 증상은 이들 장기를 침범함으로써...
- ◇...나타나게 되고, 발생부위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
- ◇...타날 수 있다. 따라서 췌장암은 이학적 검사는 물론이고 임상...
- ◇...증상면에서 볼때도 대개의 환자에서 췌장암에만 특징적인...
- ◇...임상증상이나 징후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초기에는 특...
- ◇...징적인 임상증상이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서서히 발생하기...
- ◇...때문에 임상증상이나 징후에 근거하여 췌장암을 조기 진단...
-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췌장암 환자의 대개는 이미...
-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기 때문에 예후가 극히 불...
- ◇...량하다. 한편 최근 췌장암의 진단방법으로는 내시경적 역...
- ◇...행성담췌관조영술, 전산화 단층촬영, 복부초음파검사와 초...
- ◇...음파유도하의 세침흡인 세포진검사, 내시경적 초음파검사 등...
- ◇...진단방법면에서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 ◇...진단 방법들조차 대개의 환자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
- ◇...진단하는데 이용되고 있을뿐 조기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는...
- ◇...경우가 많다. 이에 저자는 췌장암의 병태생리를 이해하는데...
-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교적 특징적인 췌장암 증상에 대해 간...
- ◇...략히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췌장암을 가능한한 조기에...
- ◇...발견할 수 있는 몇가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췌장암의 발생 초기에는 특징적인 임상증상이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췌장암 초기에 특징적인 임상증상이나 징후는 거의 없다. 그러나 약 5%이하의 극히 소수의 환자에서는 유주성(遊走性)혈전성 정맥염, 심한 소양감, 특별한 유발요인이나 과거력 없이 발생한 급성 췌장염, 당뇨병의 가족력이나 비만형 체격이 아닌 사람에서 최근 발생한 정도의 당뇨병 등이 췌장암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 주로 나타나게 된다.

2. 진행된 췌장암의 전형적 증상

1) 복부 통증
복부통증은 췌장암의 진행과 정중 전체 환자의 약 75-90%에서 관찰되는 가장 흔한 증상이다. 통증의 특징은 대개의 환자가 어느 부위인지 분명히 지적할수는 없지만 상복부 부위가 지속적으로 둔하게 느껴지면서, 때로는 허리 부위로 퍼지는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진단 당시에는 이미 반수 이상의 환자에서 이러한 복부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관찰할수 있다. 일부 환자들에서는 췌장암의 발생부위에 따라 통증의 부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즉 두부에 발생한 증양의 경우에는 주로 상복부 및 우상복부에 통증이 국한되고, 체부에 발생한 증양은 복부의 정중상부위의 통증을, 미부에 발생한 증양은 우측 하복부에 통증이 주로 나

타나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통증이 매우 심하고 지속적이거나, 허리부위로 퍼지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서는 증양의 발생부위에 상관없이 종양이 주위에인접해있는 후복강내 장기나 내장신경으로 퍼졌음을 의미한다.

2) 황달
황달은 전체 췌장암환자의 50-70%의 환자에서 관찰되나 발생부위에 따라 발생빈도에 차이가 나게 된다. 즉 해부학적으로 담관과 인접해 있는 두부에 발생한 증양의 경우에는 80-90%의 높은 빈도를 나타내게 되지만, 비교적 담관에서 떨어져 있는 체부나 미부에 발생한 증양의 경우는 10-40%에서 황달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것으로 의사의 이름을 따라서 꾸르브와지에 법칙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담낭결석 등에서 볼 수 있는 심한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 심한 황달과 담낭종대가 동반된 경우는 간의 담관이 악성종양에 의해 폐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체중감소
체중감소는 다른 증양에 비해 단기간내에 매우 심하게 발생하고 복부 통증이나 황달보다 먼저 나타나는 췌장암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대개의 환자에서는 특별히 체중감소의 원인이 필한 결핵, 당뇨병이나 절식 등이 없는데도 평소체중의 10% 이상이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감소하게 된다. 체중감소의 원인으로서는 식욕감퇴, 통증으로 인한 식사에

상복부통증·황달·체중감소·설사·변비 상부위장관출혈·구토·복부종괴등 수반

췌장암에서 나타나는 황달은 전형적으로 췌장두부에 발생된 크기가 큰 암성 종괴에 의해 총수담관의 원위부가 막혀서 일어나는 폐쇄성 황달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심하게 되는 진행성경과를 밟으면서 담즙색소의 피부내 침착을 유발하여 소양증을 동반하게 된다. 일부 환자들, 약 15-40%에서는 황달과 함께 이학적 검사에서 담낭이 축소될 정도의 담낭 종대가 동반된다. 이는 췌장암(또는 췌장과 인접해 있는 장기에서 발생한 증양)에 의해 담관이 폐쇄되었음을 의미하는

대한 공포증, 구토, 설사, 췌장 기능장애에 의한 췌장효소의 부족으로 인한 급격한 소화흡수장애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췌장암환자에서 나타나는 심한 체중감소는 이러한 원인들만으로는 설명되기 힘들어 이들의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한편 환자들은 심한 체중감소와 함께 식성이 변하게 된다. 즉 이전에는 즐겨하던 육류가 이상하게 역겹게 느껴지게 되고, 입안에서는 금속성의 냄새가 나기도 한다.

3. 췌장암의 말기 증상

1) 구토
췌장암환자에서 나타나는 구토는 췌장암이 위나 심이지장 등의 인접장기로 파급되어 섭취된 음식물의 정상 배출로인 위나 심이지장이 차단되었음을 의미한다.

2) 토혈과 흑색변
토혈과 흑색변은 상부위장관 출혈의 징후인데 췌장암환자에서 이러한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은 췌장암이 위나 심이지장 등의 혈관이 풍부한 인접장기로 파급되어 일부 혈관을 침식시킴으로써 출혈이 유발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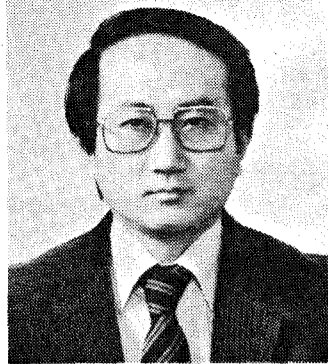
4. 췌장암의 발생부위에 따른 증상의 특징

췌장은 담관이나 간문맥 주위에 위치하고 심이지장, 위장과 대장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췌장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이들 주변장기를 침입함으로써 유발되며 그 증상들은 췌장암의 발생부위에 따라 비교적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췌장두부종양: 췌장두부는 해부학적으로 담관과 인접해 있으므로 췌장두부종양은 서서히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심하게 되는 진행성 경과를 밟는 지속적이며 소양감을 동반하는 황달을 특징으로한다.

△췌장체부종양: 췌장체부는 복강신경총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췌장체부종양은 복강신경총 주변의 풍부한 신경총을 침범함으로써 특징적으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발생된 허리의 통증을 대개 지속적이며 식사 후이나 누웠을 때 심해지고, 앉아있거나 허리를 앞으로 구부릴 때 완화되기 때문에 자연히 꼬그리고 앉는 특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췌장미부종양: 심한 체중



張麟 (慶熙醫大) 內科教授

이상의 사람에서 아래와 같은 증상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췌장암을 의심하여 정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별히 체중감소를 일으킬 만한 원인, 예를 들어 결핵, 당뇨병이나 절식 등의 원인이 없는데도 평소 체중의 10%정도가 단기간내에 감소되었을 때.

△상부 위장관 방사선 촬영이나 내시경검사에서 소화성 궤양이나 위암 등의 병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상복부통증이 지속될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허리의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특별한 유발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즉 과거에 췌장염을 앓아본 적이 없고, 또한 최근에 췌장염을 초래할 만큼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성 췌장염이 발병한 경우.

△가족 중에 당뇨병을 앓은 사람도 없고, 몸이 비대한 것도 아닌데 경도의 당뇨병이 갑자기 발생되었을 때.

△갑자기 발생한 황달이 지속적으로 진행할 때.

맺음말

결론적으로 췌장암의 발생과 정중 임상 증상면에서 볼 때 본 질환에만 특징적인 임상증상은 드물어 초기에 임상증상에 근거하여 췌장암을 조기 진단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췌장암에 보다 더 예민하고 특이적이며 정확한 진단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겠고 이러한 노력과 동시에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곧 췌장암에 대한 검사를 받음으로써 비교적 초기에 췌장암을 진단, 치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일약품

일본제약시장을 1년만에 석권한 성인병예방 치료제

메바로친

메바로친은 혈액의 흐름을 막아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지방)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신제품입니다.

동맥경화와 콜레스테롤

동맥경화는 동맥내벽에 생겨난 손상 부위에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이 침착되어 소위 "플라크"라는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동맥내벽을 좁게 만들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동맥경화증은 자각 증상없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소리없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와 합병증

● 뇌졸중(중풍)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뇌동맥이 좁아져

혈액순환이 줄고 뇌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과 산소공급이 방해받아서 생겨나는 질환으로 콜레스테롤수치를 낮추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 심장마비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혈액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로 호흡근관에 의한 동종 및 소크사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 협심증
심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진 결과로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고 죄는듯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高콜레스테롤혈증 치료의 새로운 도전 "메바로친"

- 메바로친은 89년 일본에서 개발된 최신의약품으로 월 70억엔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필요이상으로 인체내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배설시킵니다.
-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간장에서만 작용하여 타장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메바로친

표준소매가격 : 55,000원(50T)

본제품에 대한 자세한문제는 본사 PM4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TEL:(02)464-0861 교환 584